

# “광주 아파트시장 안정세 뚜렷”

## 신규 입주물량 크게 늘어 수급여건 개선

광주일보·부동산114

‘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

광주지역 아파트가격은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 증가와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들어 안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일보와 부동산114(주) 공동주최로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06년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전망세미나’에서 김희선 부동산114전무는 “광주지역의 하반기 아파트시장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공급과 수요 모두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무가 발표한 ‘광주시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내년 광주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는 5천194가구로 지난해 1만1천543가구, 올해 1만2천928가구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는 지난 2월 북구 운암동 롯데낙천대 1천490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북구 동림동 주공아파트 1천308가구가 오는 9월까지 입주를 앞두는 등 최근 2년째 신규 입주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년들어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분양시장의 경우도 올해 대우건설, 벽산건설, 호반건설 등의 신규 분양에 이어 광산구 수완지구에만 올해 말까지 총 1만201가구가 분양되는 등



광주일보와 부동산114는 8일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광주·전남 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시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광주전체	4,190	11,543	12,928	5,194
동구			76	658
서구		172	2,419	218
남구	1,669	1,854	780	
북구	1,397	4,309	7,814	4,801
광산구	1,124	5,208	2,139	237

‘분양 붐’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 이후 이같은 추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에서 동별 아파

트 매매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구 치평동으로 나타났다. 5월말 현재 치평동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426만원으로 광주 전체 297만원은 물론 남구 봉선동 342만원, 북구 일곡동 335만원, 광산구 신항동 425만원, 동구 계림동 416만원 보다 높았다.

김 전무는 “광주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급 아파트 밀집지역이 서구 상무지구 중심에서 남구, 북구, 광산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광주는 올해 들어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급 여건을

개선시켰지만 내년부터는 신규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대 노경수 교수는 ‘광주·전남의 도시개발정책’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무안기업도시의 개발여건 분석 ▲나주공동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방향 ▲나주혁신도시의 광역교통체계 구상 ▲나주 도시관리 계획 등에 대해 특강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일반인과 공인중개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열렸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금통위, 콜금리 0.25%p 전격 인상

배경과 전망

## 경기보다 물가·부동산 잡기

저금리 부작용·하반기 물가 불안 선제적 대응  
美 금리정책 영향...하반기 경기에 ‘찬물’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콜금리 인상 연전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금통위가 4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한 것은 더 늦출 경우 올해 안에는 인상 기회를 잡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변이 마지막 기회, 선거후 선제적 대응=5·31 지방선거는 명목상 콜금리 조정의 변수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최근 4개월간의 동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선거를 앞두고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에 미칠 영향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가 끝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금통위가 이날 콜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재빨리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정책당국으로서의 발빠르고 강

력한 ‘억지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의 잇단 대책을 비롯하듯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콜금리 인상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美 금리정책도 영향=최근 미국 통화당국의 잇단 콜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한미간 금리격차도 한은 금통위에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하고 이달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콜금리를 또다시 인상할 경우 양국간 콜금리 운용목표 격차가 1.2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적정수준(1%포인트)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시장금리까지 역전되면서 한국시장에서 자본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어 경기비관론자들은 경기가 악화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해야 향후 통화정책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허락하는 경기지표는 부담=그러나 이번 콜금리 인상이 가뜩이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미국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콜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가뜩이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소비자대지수,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와 같은 기업의 경기실사지수 등 최근 발표되는 선행지표들이 일제히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하반기 경기하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성태 韓銀 총재

## “하반기 경기 완만한 상승세 유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유가 및 환율이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경기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발언은 경기가 둔화 기미를 넘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최근 일부의 우려에 대한 책임있는 중앙은행 수장의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또 “경기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금융 완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는 입장에서 이번 금리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연 4.0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관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나빠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및 환율 등이 크

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금년 초와 같은 빠른 상승세는 아니어도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던 지난 달에 비해 환율·유가가 비교적 안정된 것을 제외하고 경기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일부 표명했다. 연합뉴스

## 주가 또 폭락...코스피 43.71P↓

2년만의 최대 낙폭...1223.13

코스피지수가 2년만에 최대 하락률을 보이며 이를 연속 ‘블랙데이’를 연출했다.

8일 서울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3.71포인트(3.45%) 급락한 1,223.13을 기록했고 낙폭이 진정된 코스닥지수도 3.50포인트

(0.62%) 내린 559.41로 마감하며 560선을 하회했다. 이로써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11월7일 이후 7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날 하락률은 지난 2004년 6월11일(3.93%)에 이어 2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 21조원이 감소한 596조6천940억원으로 줄면서 지난해 11월22일 이후 6개월여만에 처음으로 600조원을 밑돌았다.

증시는 이날 계속되는 경기둔화 및 금리인상 우려와 4개월만에 단행된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 8개월만에 기준치를 하회한 소비자대지수, 일본 증시의 급락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급락을 불렀다.

여기에 트리플위칭데이(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를 맞아 장 막판 프로그램 매물홍수가 쏟아지며 일시에 낙폭을 키웠다. 이날 프로그램 매매는 5천439억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오른쪽)이 한국표준협회 이계형 회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 ‘박제가상’ 수상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이 ‘박제가상’의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조선시대 실학자인 박제가 선생 사후(死後) 200년을 기념해 한국표준협회가 제정한 제1회 ‘박제가상’을 이기태 사장이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이기태 사장은 기술중시의 사상을 주창했던 박제가 선생의 뜻을 되살려 와이브로(휴대 인터넷) 개발 등으로 우리 기술의 세계화에 앞장선 경영자”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초정 박제가 선생은 ‘북학의’를 통해 이미 200년 전에 표준의 중요성과 이의 실천을 통한 국부창출을 주장함으로써 ‘국부론’의 저자 영국의 아담 스미스에 버금가는 사상과 철학을 전파한 실학자였다.

‘박제가상’을 수상한 이기태 사장은 한국현대전환산업협회 회장,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한국 IT산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재계, 저출산대책 재고 요구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재계가 “기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연령 체계와 고령자의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8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출산증진의 소득 및 고용안정을 통한 미래 불안요인의 감소와 고령계층의 소득 및 생활안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이를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은 투자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증대이지만 정부 계획안에는 이런 문제 인식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 연장, 시간제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 정부 시안에 포함돼 있는 대책들 가운데 일부는 “기업의 부담 증가로 고용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그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보험사 예금보험료 대폭 인하해야”

세종대 이순재 교수

보험사들이 예금보험금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대폭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 이순재 교수는 8일 국회에서 보험개발원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예금보험제도의 현안 과제 및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권의 예금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은 0.3%(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절반 기준)로 예금 평균 잔액 등을 기준으로 한 은행 0.1%, 증권사 0.2%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니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엠엘다플러스	건설 시행 및 기획관리 업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0	062-653-5101
㈜지이오하우스	[폭스바겐]자동차 A/S 팀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1	062-351-9500
동양생명보험(주)	2006년 상반기 매출 신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2	062-226-4904
㈜그린텔	KTF 광주웹서비스센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6/12	042-223-4900
㈜부림	2교대 조립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5	062-514-6464
서울검사(주)	2006년 정규직 비파괴검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15	062-369-0790
스페이스라인	웹디자이너, 웹프로그래머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6/15	019-627-1154
㈜현보하이텍	[광주]지재관리 사무 보조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16	063-536-1560
태영건설(주)	경리 및 입찰업무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16	061-381-9101
벽송개발주식회사	매장관리 및 영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62-655-1010
㈜아이신업	경리/회계/총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17	062-951-2332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공계 국비무로 취업연수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350-243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